

순천 해룡산단 입주기업들 한숨 돌렸다

광양경자청, 2단계 부지 51.8% 일부 준공 승인 금융권 이용제한 등 불이익 해소...분양 활성화 기대

순천 해룡일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산단 입주업체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산단 시행사인 대우건설측의 대립으로 산단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광주일보 2018년 12월 11일 1면> 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1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은 최근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 중인 해룡일산단 단지 2단계 부지에 대한 일부 준공 인가를 승인했다.

해룡일산단지 조성사업은 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대 159만2808㎡ 규모로 조성중이며, 1단계 임대단지는 33만1405㎡로 순천시가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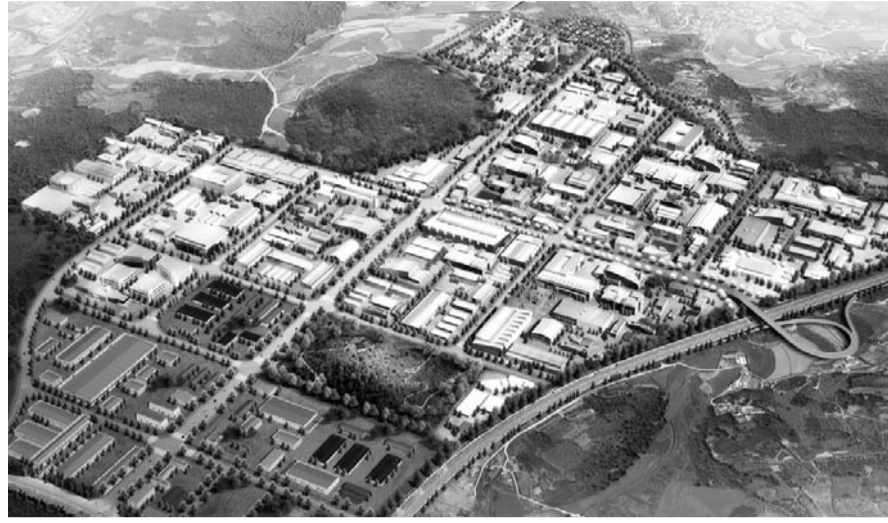
2단계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대우건설이 2010년부터 27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126만1403㎡ 규모로 조성중

으로, 2-1단계로 전체 사업 부지의 51.8%인 65만3179㎡에 대한 일부 준공이 승인됐다. 이는 광양경자청 설명이다.

그동안 산단 내 입주 업체들은 광양경자청의 준공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산단 내 부지를 매입, 공장을 짓고 운영하면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공장 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해룡일산단 입주 기업이 23곳에 이르고 이주자 택지를 보유한 48가구도 소유권이 전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양경자청은 산단 조성 공사 시행사인 대우건설과 폐수처리실 증설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분양 승인을 미뤄왔다.

경자청은 폐수처리실 증설비용의 경우 2-2단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 시행사측 입장과 달리, 시행사



해룡산단 전경.

측의 명확한 부담 입장이 없고 공공시설 관리주체도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입주업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과거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다"며 반발했고 광양경자청은 뒤늦게 시행사측과 협의에 나서 이번에 일부 준공 승인을 내줬다.

경자청은 이번 준공 승인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일부 해소되고 해룡산단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금까지 입주기업들이 겪어올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일부 준공이 마무리 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대통령 별장 '저도' 개방 17일부터 유람선 운항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경남 거제 시 저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거제시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후 저도 4호 향하는 첫 유람선이 뜬다"고 15일 밝혔다.

오후 2시 30분 저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장목면 공농항에서 저도로 가는 유람선이 처음 출항한다. 저도와 공농항 간 거리는 약 3.9km다. 공농항에서 약 10분간 운항하면 저도 계류장에 닿는다.

관광객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로 7월 30일 저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답사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갑철 경남과기대 교수의 인솔로 해안가 탐방로를 중심으로 1.3km 남짓한 산책길을 걸었다.

저도에는 산책길 외에 군에서 관리한 골프장, 탐방로 등이 있다. 이번 개방에 맞춰 골프장은 '연리지 정원'으로, 탐방로는 '이순신로', '울포로'란 새 이름을 얻었다. 울포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 수군을 무찌른 거제시 장목면 일대 앞바다를 일컫는다. 관광객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저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1시간 30분 정도 머문 관광객들은 다시 유람선을 타고 물으로 향한다.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15주째...친중-반중파 충돌

경찰, 반중 시위대만 체포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5주째 접어들어 가운데 홍콩 곳곳에서 친중국 시위대와 반중국 시위대의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홍콩 경찰은 친중국 시위대는 쫓 빼놓은 채 반중국 시위대만 체포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홍콩 명보, 빈과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친중국 시위대 수백 명이 카오퐁베이 지역 쇼핑몰인 아모이 플라자에 모여들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을 불렀다.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몰려왔고, 이들은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을 부르면서 맞불을 놓았다. 결국, 양측은 주먹다짐하고 우산, 국기 등을 휘두르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2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홍콩 경찰의 편파적인 대응은 홍콩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모이 플라자 출동한 경찰은 주로 중장년층으로 이뤄진 친중국 시위대는 아무도 체포하지 않은 채 반중국 시위대의 주류를 이룬 젊은이들만 20명 가까이 체포했다고 명보와 빈과일보는 전했다.

친중국 시위대는 주로 남색 옷을 입었고, 반중 시위대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상징인 검은 옷을 많이 입었다. 이들 매체에



12일 홍콩 IFC 쇼핑몰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가 최근 홍콩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노래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을 부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따르면 한 친중 시위대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자 경찰은 이 사람을 즉시 체포했다. 이에 오성홍기를 든 친중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한 시민이 '남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시민을 구타한다'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 친중 시위대를 체포하지 않고 되레 호위해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젊은이들을 마구 구타하자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제발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남성은 외식하러 나온 자기 아들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고 항변했다. 더구나 반중국 시위대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친중국 시위대가 적극적으로 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인당 稅부담 749만9000원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년엔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짚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면서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15일 기재부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제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제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제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

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 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노벨상 계절이 온다

10월 7~14일 수상자 발표... 문학상은 10일

올해 노벨상 수상 발표가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노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가장 먼저 7일 생리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등 과학 분야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문학상, 11일에는 평화상, 14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가 공개된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노벨상은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금으로 준다'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토대로 제정됐으며 1901년부터 수여가 시작됐다.

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까지 118년간 생리학·물리·화학 등 607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생리학상 수상자가 2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물리학상 수상자가 210명, 화학상 수상자가 181명이다.

생애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노벨상을 2회 이상 받은 과학자도 있다. 마리 퀴리는 1903년 물리학상, 1911년 화학상을 각각 받았으며 라이너스 폴링은 1954년 화학상, 1962년에는 평화상을 수상했다. 존 바딘은 1956년과 1972년 각각 물리학상을 받았고 프레더릭 생어는 1958년과 1980년 화학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 추분과 내년 탓에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문학상에서는 올해 2018년과 2019년 수상자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문학상의 경우 날짜를 정하지 않고 발표에 임박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사전에 공지했다.

문학계 안팎에서는 케냐 소설가 응구기 와 시옹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캐나다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 등이 거론된다. 고은 시인의 경우 오랫동안 후보군에 속했지만 '미루' 논란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투자자 10억원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12% 이상

법적보장.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시행하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9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무엇인가요?
R&D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산학연협력의 이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법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기술활용, 프리젠테이션 실무,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등	45시간	30명

▶ 모집기간 ▶ 2019.09.02.(월) ~ 2019.09.20.(금)

▶ 교육기간 ▶ 2019.09.23.(월) ~ 2019.11.13.(수)

▶ 교육시간 ▶ 매주 월, 수 18:30 ~ 21:30

▶ 교육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등관 3104호실

▶ 교육특전 ▶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수료 발급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 우)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 메일 : always@kw.ac.kr

▶ 문의 ▶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